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 '그리스도의 편지' 계속적으로 활용

### 편지도 3종류로 - 전도대상자, 장기결석자, 새신자로 구분

### 참여자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효과 큰 차이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16:15)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살아서 도전과 자극을 주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면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처럼의 전도할 기회를 잃고 만다.

과연 어떻게 해야 쉽고 거부반응 없이 복음의 문으로 대상자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에게 거부감 없이 접근하여 접촉점을 이루고 단련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이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을 돕고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불신자들에게 쉽게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교회실정에 맞게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12일 주일, 교회에서는 12종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용한 전도의 불길은 뜨겁게 타올랐다. 한 주일에 23,000통이 훨씬 넘는 편지는 매주일 강대상 위에 수북히 쌓여 당회장 목사의 간절한 기도 후에 대상자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각 부서별로 3종류가 발행될 계획인데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용 씨앗편지이다.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한꺼번에 2,000여명의 새가족을 맞게된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안내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양육용 열매편지를 오늘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양육용 편지는 26주간 동안 시리즈로 발행하여 기독교 기본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편지는 대략부 이상의 부서에서 새신자에게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교회학교의 요청에 따라 교회학교 장기 결석자를 위한 새순편지도 제작 중에 있다. 이 편지는 4주 정도의 시리즈로 이를 통해 장기결석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교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효과를 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편지는 모두 크게 3가지 종류가 된다. 즉, 씨앗(불신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전도용 편지), 새순(장기 결석자들에게 새로이 믿음의 순을 틔우기 위한 편지), 열매(새로 결신한 새신자를 성숙시켜 열매맺기 위한 양육용 편지)로 구분됨에 따라 성도들은 아래의 표를 잘 참조하여 혼돈이 없이 편지를 받을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보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가능한 모든 통로를 마련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편지를 활용하는 온 교우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가 끝남에 따라 편지 보내는 일도 다소 해이해 진듯도 하다. 그러나 이런류의 편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낼때 효과가 있게 됨을 인식하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명을 반드시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켜겠다는 견고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전파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리스도의 편지' 종류 및 구분

| 부서 | 종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26   |
|----|----|----------------|------|------|------|------|------|------|------|------|-------|-------|-------|---|------|
| 유치 | 씨앗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 새순 | 1-1            | 1-2  | 1-3  | 1-4  | *    | *    | *    | *    | *    | *     | *     | *     | * | *    |
|    | 열매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유년 | 씨앗 | 2-1            | 2-2  | 2-3  | 2-4  | 2-5  | 2-6  | *    | *    | *    | *     | *     | *     | * | *    |
|    | 새순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     | *     | * | *    |
|    | 열매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    | *     | *     | *     | * | *    |
| 초등 | 씨앗 | 3-1            | 3-2  | 3-3  | 3-4  | 3-5  | 3-6  | *    | *    | *    | *     | *     | *     | * | *    |
|    | 새순 | 3-1            | 3-2  | 3-3  | 3-4  | *    | *    | *    | *    | *    | *     | *     | *     | * | *    |
|    | 열매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    | *    | *     | *     | *     | * | *    |
| 중등 | 씨앗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    | *    | *     | *     | *     | * | *    |
|    | 새순 | 4-1            | 4-2  | 4-3  | 4-4  | *    | *    | *    | *    | *    | *     | *     | *     | * | *    |
|    | 열매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    | *    | *     | *     | *     | * | *    |
| 고등 | 씨앗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    | *    | *     | *     | *     | * | *    |
|    | 새순 | 5-1            | 5-2  | 5-3  | 5-4  | *    | *    | *    | *    | *    | *     | *     | *     | * | *    |
|    | 열매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    | *    | *     | *     | *     | * | *    |
| 대학 | 씨앗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6-10  | 6-11  | 6-12  | * | *    |
|    | 새순 | (낙심자용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열매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6-10  | 6-11  | 6-12  | * | *    |
| 청년 | 씨앗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10  | 7-11  | 7-12  | * | *    |
|    | 새순 | (낙심자용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열매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10  | 7-11  | 7-12  | * | *    |
| 장년 | 씨앗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8-10  | 8-11  | 8-12  | * | *    |
|    | 새순 | (낙심자용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열매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8-10  | 8-11  | 8-12  | * | 8-26 |
| 주부 | 씨앗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9-10  | 9-11  | 9-12  | * | *    |
|    | 새순 | (낙심자용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열매 | (장년부 열매편지와 동일) |      |      |      |      |      |      |      |      |       |       |       |   |      |
| 소망 | 씨앗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0-10 | 10-11 | 10-12 | * | *    |
|    | 새순 | (낙심자용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열매 | (장년부 열매편지와 동일) |      |      |      |      |      |      |      |      |       |       |       |   |      |
| 낙심 | 씨앗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1-10 | 11-11 | 11-12 | * | *    |
|    | 새순 | (장년부 열매편지와 동일) |      |      |      |      |      |      |      |      |       |       |       |   |      |
|    | 열매 | (장년부 열매편지와 동일) |      |      |      |      |      |      |      |      |       |       |       |   |      |
| 환우 | 씨앗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    | *    | *    | *     | *     | *     | * | *    |
|    | 새순 | (낙심자용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열매 | (장년부 열매편지와 동일) |      |      |      |      |      |      |      |      |       |       |       |   |      |

◆ 씨앗편지 : 불신자용, ◆ 새순편지 : 장기결석자용, ◆ 열매편지 : 새신자용



◀ 그리스도의 편지 (전도대상자용)의 앞면과 뒷면 중 한부분

## 내년도 조직 부분적으로 변경 교육위원회 둘로 나누어 운영

### 청년부도 청년1부와 청년2부로

교회는 내년도 조직을 일부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조직은 교육분야로 현재 전 교회학교는 단일 교육위원회 산하에 두었는데 교회학교 특성상 일관성 있고 통일성있는 운영관리가 어렵기에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나누기로 했다.

따라서 제1교육위원회 산하에는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1·2·3·4·5·6부, 중등1·2·3부, 고등부를, 제2교육위원회 산하에는 대학부, 청년1·2부, 장년1·2·3부, 소망부, 새가족부, 사랑부, 에바다부, 탁아부를 두게 된다.

또한 교회학교 청년부를 둘로 나누어 20세부터 29세까지는 청년1부로, 30세부터

39세까지는 청년2부로 정했다. 따라서 현 30세부터 39세까지 장년1부가 청년2부로, 40세부터 49세까지의 장년2부가 장년1부로, 50세부터 59세까지의 장년3부가 장년2부로, 60세부터 69세까지의 장년4부가 장년3부로 조정된다. 청년부가 둘로 나뉘어 보다 역동력 있는 청년부가 기대된다.

### 경로대학 특강, 11월 4일에

"노인의 건강관리", 강사에 김응진 박사  
경로대학은 오는 11월 4일(목) 오후 2시 갈릴리움에서 "노인의 건강관리"란 제목으로 특강을 갖는다. 강사는 현재 서울대 병예교수로 을지의료원 의무원장인 김응진 박사.



• 중헌강단 •



# 장애인의 사명과 바른 자세

(요 9:1-12 ; 롬2:7-10)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이 원고는 지난 10월10월 18일~21일 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렸던 제2회 전국장애인목회화대회에서 주강사였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두번에 걸친 설교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1. 장애인의 사명

(1) 모든 피조물은 다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명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뒹굴며 발에 채이는 돌 하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가 있습니다.

(2)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소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3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요 목적입니다. 장애인이라 할 때에는 보통 신체적인 장애인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장애인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건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도 못하고, 천국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중증장애인인 것입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전10:31)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평강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느냐, 하나님을 바로 믿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느냐를 물으십니다. 세상의 무슨 활동이라고 한다면 몸이 불편한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생활하는 것은 몸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장애인의 바른 자세

(1) 장애인의 여러 삶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나를 낳으랴고 그랬나, 낳으려면 재대로나 낳지, 장애인으로 낳아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둘째 "기왕에 태어났으니 어찌랴, 이것이 내 운명이야"라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의 경우도 있는데 내가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읊에게서 본받을 점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읊입니다. 본래 그는 장애인이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고 동방에서 알아주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읊에게 연이어 비호가 날아들었습니다. 먼저는 재산이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셋째는 질병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넷째는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친구들이 와서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심판을 받느냐고 하면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읊에게 바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읊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 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1:21,22) 이것이 우리가 읊에게서 본받아야 할 절대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애인 된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고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장애로 불편할런지는 몰라도 정신적, 영적인 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불편한 요소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비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기자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119:67)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71)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해주고 인내하고 참는 힘을 길러주며 인격을 온전하게 합니다.

(3) 고난을,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이상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전에 먼저 정신적 장애를 극복해야 하고 영적인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난을 하나님의 품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벧전1:6-7). 넷째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룹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나가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 고통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46:1-3) 장애인들은 마치 산이 요동하는 것처럼,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노는 것처럼, 산이 변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요동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후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실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저주시며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5) 장애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적어도 영적 장애에서만은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 장애에서만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은 바로 여러분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건강한 성도들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신 것은 그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알코올 중독자를 결신시키고 나서

이진규  
(집사, 제20교구)

드디어 10월 17일이 되었다. 오전 10시 30분쯤 낮모르는 한 술취한 자가 나를 찾았다. 선뜻 대답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이며 술에 취한 모습이 10년전 나의 모습과 흡사했다.

**할렐루야!** 매번 이런 글을 적게 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92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치룬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러 버렸다. 년중 행사로만 느껴지거나 앓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던 중 매주 쓰는 편지 속에는 계절의 변화, 주위의 환경, 가족들의 안부 또는 주변 정세 등으로 말머리를 연결하여 한 주에 한번씩 약 400여명의 불신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글을 적은 지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은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어머니에게 한통 한통 보내다보니 형님 동생 이웃에게도 보내게 되었다.

1980년 12월,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참 자상하시며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

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지만 낮모르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어머니는 점을 치는 무당이였기에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분이였다. 귀신도 조선 귀신과 양귀신 싸움이라고 하면서 아예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곤 했다. 나의 의사표현이나 예수님의 증거는 아예 말로써 할 수가 없으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면을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어머니에게는 약 480여통의 글을 쓰게 되었다. 그후 어머니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예수님의 거역자 사탄이란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인 하였고, 바다보다도 더 많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으며,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후 형님, 남동생, 여동생, 이웃에 계신 김모씨도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나는 작년에도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년에도 더욱 큰 전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지켜만 주시면 아꼐 끝까지도 달려 가겠다고 하면서 400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던 중 중학교 졸업후 만나지 못했던 동창중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수하게 되었다. 즉시 다이알을 돌리니 절절한 음성으로써 누구라는 기억을 잘못된 상태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도 한 사람의 슬친구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 기억났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였다. 그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흔 아홉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다시 펜을 들고 몇 통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자꾸만 궁금하여 만나자고 하였지만 10월 17일로 미루었다.

드디어 10월 17일이 되었다. 오전 10시 30분쯤 낮모르는 한 술취한 자가 나를 찾았다. 선뜻 대답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남루한 옷차림이며 술에 취한 모습이 10년전 나의 모습과 흡사했다. 나는 강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도하기로 했다.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의 눈빛을 바라보니 불안한 모습으로 어쩔줄을 몰랐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교회가 수용 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안심하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었지만 그는 불안 속에서 헤어날지를 못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권면하는 나 자신도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주일 날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10월 24일 주일이였다. 그는 자기 부인과 함께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어린시절에 만났던 그 모습을 그려본다고 하지만 그때모습은 하나도 없으며 자기의 비참하게 변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었다.

충현의 식구들이여, 이 지면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현의 식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혼이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거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고생대학을 입학해서 몇 년만에 졸업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던지신 목사님 질문에 저의 대답은 '아직 재학중입니다'. 결혼후 13년 동안 천국을 향해가는

나의 인생길은 캄캄하고 가도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험한 산길에서 낭떠러지고 절벽을 만나고, 모진 풍랑과 싸워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숙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향해 매어 달리도록 만드셨더군요. 거센 풍파 속에서 거센 물줄기를 헤쳐 나가는 외로운 한 마리의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희망이라곤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면 어디에서 나는지 힘이 솟고 용기가 납니다. 이렇게 끝끝내 다 가르쳐 주시고 수석으로 졸업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신 세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13년전 충현교회 모 집사님께 전도를 받고 같은 날 등록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가난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교회에 헌금 바칠 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열심을 내어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매일 눈물로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곤



김경자  
(집사, 장년1부)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 성경공부로 완전히 변화된 남편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들은 시종일관 감격하고 마음을 흔들어 잘못되고 그른 것들을 정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 속에 쌓였던 모든 것이 말끔히 씻기어 자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 남편은 사업의 실패로 용기를 잃고 갈 길물라 헤매이며 방황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술과 친구되었고 시간다면 화투놀이 에 시간보내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탄식하시며 한탄하셨겠습니까? 주일이면 제가 아이들과 모두 교회를 가니까 심심해서 따라나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먼저 털어서 가지고 가는 영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한것 같습니다.

또 아내한테는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그런 무지하고 완악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은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면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불 들어 매어 놓는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이런 처지라 나의 기도는 늘 남편에 대한 기도가 자리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도해도, 듣지 않는 효력없는 약처럼 매일 그 자리였습니다. 사업은 팔할 것도 없고 생활은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먼저만도 못한 내 인생을 발견하고 용서와 하나님을 바라 보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일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93년 1월, 성경공부를 권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쾌히 승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년 1부 부부 5반으로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13년 동안에 성경을 3장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남편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하신 주의 종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들은 시종일관 감격하고 마음을 흔들어 잘못되고 그른 것들을 정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 속에 쌓였던 모든 것을 말끔히 씻어 자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흘러 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고난을 통해 답답했던 것을 주의 종을 통해 모두 이야기 하셨습니다. 어쩌면 내 속을 들여다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은 물이 잔뜩 담긴 풍선같아서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나는 물

보신자였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저희를 위해 귀하신 주의 종을 예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믿음의 본질과 양심의 소리 와 죽음 앞에서 본 나의 인생 등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 부부는 회개의 눈물로 용서와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뒤덮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사람 앞에 한번도 속 시원히 털어놓아 본적이 없었습니다.

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성경 옮겨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이 절로 나왔고 소리높여 손뼉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눈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해서 신약을 쓰는 동안 그렇게 아픈 팔도 아프지 않았고 성경공부를 통해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을 씁니다. 생각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금은 새벽기도로 철야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또 교사양성부도 등록해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 육신의 것을 쫓아 시간을 활동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젊을때 힘들게 충성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 위영환·임현덕 장로 귀국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가서 생활하고 있는 위영환(7대) 장로와 임현덕(12대) 장로가 친지 방문차 귀국하였다. 연락처는 위영환 장로(358-4545), 임현덕 장로(997-2719)

## 새가정 세미나 오늘도

교회학교 새가정부는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새가정세미나를 연다. 강사는 극동방송 상담실장인 이상은 선생인데 주일 오전 11시, 새가정부실(교육관 201호)에서 모인다. 첫째날(24일)에는 '그리스도인 가정생활의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모여 큰 성향을 이루었다. 오늘은(31일)의 주제는 '부부생활의 갈등원인과 해결'이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안드레전도운동 총결산

교회학교 초등6부

초등6부는 금년 한해동안 586명(금년 첫주 일 출석의 2배) 출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던 '안드레 전도운동'의 총결산을 갖는다. 로 10월 31일 주일에배를 마친후 '안드레초청 전도잔치'를 오전 10시부터 교육관 6층 옥외 잔디밭에서 갖는다.

간단한 환영식에 이어 유쾌한 레크레이션(지도 전승훈 집사) 시간을 가지며 초청된 학생들은 물론 전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여 한데 어우러지는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 11월 12일(금)에 학습·세례식

### 11월 14일(주)에 성찬식

11월 7일(주일)까지 신청해야

학습·세례식이 11월 12일(금)에 실시된다. 금년 들어 네 번째인 학습·세례식은 금년으로는 마지막인데 학습·세례·유아세례·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11월 7일(주일)까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예비교육 및 문답이 11월 1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14일 주일에는 주일 I, II, III, IV 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한다.



##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1월1일(월)-3일(수) 문산교회 부흥회 인도,  
3일(수) 오치용 목사 위임예배 설교(왕십리 교회),  
4일(목)-5일(금) 순복음 성남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11월1일(월)목회자 세미나 강의,  
2일(화) 대검 기독교신학회 설교(대검찰청),  
4일(목) 정부 제1종합청사 기독교신학회 설교(종교교회),  
5일(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2.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과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어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예수사랑 큰잔치에 오신 분들과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을 내려주소서.
5. 입시생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소서.

## 제직원사진 촬영 모두 참여키를

지정된 주일에 찍지 못한 사람 수, 목, 금요일 중에 촬영

제직원께서는 교구별로 지정된 주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사진을 찍으시고 주일에 못 찍은 분은 평일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찍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날짜에 못 찍으신 분들도 평일에 오셔서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교구 :

10월 31일 제15교구, 제16교구  
11월 7일 제17교구, 제18교구

· 촬영시간 :

주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 홍콩 / 김은태 선교사



광주의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 재생산하는 일은 바로 '북한선교'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교회 40주년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를 향한 뜻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을 위시하여 온 교회가 베푸신 그 큰 사랑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피곤한 심신을 완전히 새롭게 충전해 주셨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일꾼은 적은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가까운 심천만 해도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들리 조선족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지요. 제 자신이 믿어지

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그들을 양육하면서 전도할 일꾼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현재 광주와 심천, 이 두곳에서 은밀히 모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저희 교회 동역자 정전도사님과 제가 교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가고자 합니다. 광주에 있는 형제 자매는 정전도사님이 그동안 양육한 자들인데 지금 정전도사님이 홍콩에서 중국어훈련을 2년 계획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콩에서 저를 도와서 함께 교회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는 중국 광주와 심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야 하였습니다. 그러

나 모든 여건상 자주 가지는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길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 재생산하는 일은 바로 '북한선교'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지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일을 기도 부탁걸 말씀드리면, 저는 여리고 부족한 탓에 큰 일도 못하면서 참 바쁘게 하루 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가야할 곳은 많은데 아직은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하고, 자신이나 교회가 내적으로 더 다져져야 하겠기에 준비하고 내적으로 세우는 일을 더 주력하는 편입니다.

1. 제자훈련 : 이민 사회에선 한 사람의 성숙한 기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감사한 것은 제 생각엔 고급반 계속 참가자가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도 했으나 한 분을 제외하곤 중급반 수료자가 다 동참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좋은 제자가 세워지는 훈련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감사한 점은 제자반 입학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기초 성경반이 은혜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급반은 제 아내가 한 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 새벽기도회와 선교를 위한 금요철야기도회가 더욱 부흥하길 원합니다.

3. 광주와 심천에 있는 교회들(작은 형제 자매모임) 주님의 날개아래 품어주시길 바라며 제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광둥어의 빠른 진보로 현지인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원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광둥어의 진보를 위해 중국 신학원에서 공부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가서 중국인 전도하는 날인데 언어의 약점으로 인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전부터는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각종 성경공부를 마치면 나가서 중국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5. 10월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예수 전도협회(대표 이우빈 권사)에서 16분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이 오셔서 중국어도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전도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저희와 함께 사단과 싸우게 됩니다. 홍콩의 가득찬 우상들이 무너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김은태 선교사  
(서인숙, 김성약, 김이삭)드림

